

전남도내 유통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

171건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온라인판매 제품 검사 강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도내 유통중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생산·유통 식품과 학교 급식 식재료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는 주로 유통 식품 106건(농산물 26, 수산물 30, 가공식품 50)을 비롯 학교급식 식재료 33건, 개인 요구 32건 등 총 171건이 이뤄졌으며,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전 사고 시에는 알파(α), 베타(β), 감마(γ) 핵종의 방사능이 발생하나, 식품 검사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감마(γ) 핵종인 세슘(Cs)과 요오드(I)를 오염 지표로 검사하고 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축적돼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방사성 세슘은 신체에서 칼륨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신장 등 여러 장기에 축적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828건의 검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비해 방사능 검사 장비 보강을 마쳤으며, 방류시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호철 약독화학과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판매 제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며 "전남지역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동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안전보험' 시행

광주 동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보장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 원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가능하다.

서구,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광주 서구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업소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육성자금 등을 융자하게 된다.

융자대상은 서구에서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하고 운영중인 곳으로,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자다.

업종 및 융자종류에 따라 많게는 3억원까지 연 1%에서 연 2%의 이율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게 되며, 융자금액에 따라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게 된다.

남구청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금 늘린다

광주 남구청장은 12일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율을 연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자 차액 지원금이 연 1% 더 증가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이 올해 1월부터 금융권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차액도 그만큼 줄어 경영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내 구청장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경로당 370곳에 공공 와이파이 무료 보급

광주 북구는 관내 전체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유튜브 등 비대면 콘텐츠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북구는 13일 KT광주지사와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협약'을 맺고 오는 3월까지 경로당 370곳에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약에 따라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광산구 "자가격리 광산구 미술 꾸러미로 더세요"

광주 광산구가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미술심리지원 행복꾸러미를 나눠준다.

광산구에서 활동하는 미술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마련된 이번 행복꾸러미는, 자가격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복구를 위한 것.

행복꾸러미는 아동·청소년용, 어른용, 가족용 3가지가 있고, 가족용은 2명 이상 가족이 자가격리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꾸러미는 수채 색연필, 사인펜, 캔버스, 한지 색종이 등으로 구성돼있다. 임형택기자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시설 개선자금 등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기금은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업소 등에 대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안전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융자사업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 개선할 경우 1000만원) 등으로,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될 수 있다.

기금의 융자기간은 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또한 융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 2%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 연 1.0%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관할 자치구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광주은행, 국민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식품안전과(062-613-4363)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최저'

역대 가장 낮은 15µg/m³ 기록...다양한 저감책 한몫

전라남도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전국 472개, 전남 43개)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9µg/m³였으며, 전라남도는 15.0µg/m³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9년 전남지역 농도 19.9µg/m³ 대비 21.1% 감소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해 전남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36µg/m³ 이상)'으로 확인된 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7일을 기록, 2019년 24일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어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미세먼지 환경기준(15µg/m³)을 달성한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전남의 11개 시군이 포함된 우수한 성과도 봤다.

도내 지역별로 완도군이 12.0µg/m³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여수시(13.9µg/m³), 광양시(14.9µg/m³) 등 순이다.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이유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를 비롯 중국

의 대기질 우량일수(40일) 지속, 코로나19 영향 및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2천 472대를 보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1만 1천대를 설치했으며, 대기측정망 43개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더불어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10개소와 함께 도시바람길숲, 생활환경숲 등 생활 밀착형 도시숲 53개소도 조성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2020~2024)에 따라 6개 부문, 22개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업국장은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한 전남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 시간에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급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개인 행복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안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의견 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 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시행령 제4조2(발전사업에 대한 견수령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고합니다.

- 발전설비용량 : 60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1. 12
- 사업운영기간 : 2021. 12~2041. 11 (20년예정)
- 의견제출기간및방법 : 2021. 01. 06~2021. 01. 15까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길 171-37로 우편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거나 이메일 wj2000n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명 | 신청인 | 용량 | 위치 및 면적 |
|-------|-----|------|-----------------------------------|
| 발경발전소 | 이우정 | 99.9 | 공산면화성리395-14, 15, 23, 25, 62 500㎡ |
| 주황발전소 | 이미현 | 99.9 | 공산면화성리395-14, 15, 23, 25, 62 500㎡ |
| 노랑발전소 | 이완진 | 99.9 | 공산면화성리395-14, 15, 23, 25, 62 500㎡ |
| 피랑발전소 | 이남석 | 99.9 | 공산면화성리395-14, 15, 23, 25, 62 500㎡ |
| 초록발전소 | 이민희 | 99.9 | 공산면화성리395-14, 15, 23, 25, 62 500㎡ |
| 보라발전소 | 유나영 | 99.9 | 공산면화성리395-14, 15, 23, 25, 62 500㎡ |

